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실시

남원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9세~24세 청소년 발굴... 6월 14일까지 신청

남원시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의 9세~24세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따라서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은 누구든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통합조사팀의 소득·재산기준 적합 여부(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작년보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과 은둔형 청소년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사업 내용이 개정된 것과 더불어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등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협조로 관내 숨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별지원금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청받고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633-1977)로 하면 된다.

한편 여성가족과 차미화 과장은 "이번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은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던 청소년을 발굴하고 관련기관에 연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며, 청소년 및 보호자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순창군 귀농귀촌 홍보를 통한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순창군,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 정책 홍보, 상담 진행

순창군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순창군 귀농귀촌 홍보를 통한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는 스마트 팜 시대에 발맞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도심과 농촌을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순창군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부스를 운영하며,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순창의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특히, 이사정착비, 주택수리비, 귀농인 소득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순창에서 살아보기, 청년농농실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순창군의 우수한 귀농귀촌 정책을 널리 알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박람회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순창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홍보를 통해 순창군 정주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봉황인재학당, 하반기 입학생 추가선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임실봉황인재학당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하반기 입학생 추가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추가 선발인원은 중등반 19명, 고등반 6명 모두 25명으로, 지원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중등반은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7월 8일까지 관내 중학교로 전학 예정인 학생이며, 고등반은 임실고등학교 교장의 성적 우수자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중등반 입학생은 오는 22일 봉황인재학당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으로, 6월 25일 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수업은 7월부터 시작되며, 중등반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교시 수업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내신 대비 특강으로 과학, 역사 과목을 진행한다.

고등반은 주말 수업으로 수능 대비



임실봉황인재학당 (사진=임실군청 제공)

수업과 대입 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봉황인재학당 입학생 추가선발 공고 및 응시원서는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go.kr>) 임실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봉황인재학당(063-643-95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봉황인재학당은 지난 2018년 개원 이후 매년 150명씩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등교육의 질을 한 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고등반을 운영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인접 도시로 떠나야 했던 교육 중심지로 발돋움했다는 사실이 큰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 현장 집중 안전점검

순창군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근로자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소속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예방 민간 노동안전지킴이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과 현장 안

전보건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군 소속 현업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종사자들에게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재교육함으로써 사고 위험성과 예방 조치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중 발효테마파크와 금과

어린이집, 기타 교량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과 그에 따른 안전점검, 현장 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검사했다. 공공 발주공사 현장점검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주요재해(추락, 기임, 화재, 폭발)별 예방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현황을 점검하였고, 특히 여름철 폭염 및 호우 시 근로자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무재해 안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일자리 박람회로 인력난 해소 나서

21일 장애인체육관서

순창군이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을 위한 '2024년 순창군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상담관, 취업지원관, 체험존 등 다양한 테마로 구역을 나누어 운영되며, 방문객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부스를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될 예정이다.

채용상담관에서는 순창군 내에서 운영 중인 2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맞춤형 일대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직자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면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는 이력서에 첨부할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험존에서는 개인이 가진 신체의 색깔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찾

는 퍼스널컬러 진단, 직업 타로체험, 지문 성격검사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재미와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말까지 관내 및 인근지역 기업의 일자리박람회 참가 신청을 받아 20개 업체를 확정했으며, 많은 워크넷 등록 구직자들과 취업희망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및 유선안내,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 기업과 인재들이 만나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벌쏘임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는 여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벌 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벌 쏘임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의해 소방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야외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벌 쏘임, 벌집 제거 신고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벌 쏘임 예방법은 △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사용 자제 △ 흰색 계열의 소매가 긴 옷 착용 △ 벌집 발견시 절대 건들지 말고 119신고 △ 벌집 접촉 시 머리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 △ 달콤한 음료나 탄산음료 자제 등이다.

벌에 쏘였을 경우 스카프 등을 이용해 벌집 제거 △세척 및 소독 후 얼음주머니를 이용해 찜질 △울렁거림, 구토, 설사, 어지러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의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 후 1시간 이내 병원 치료 등이다. 이철성 대응예방과장은 "안전수칙을 준수해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서,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 대비 훈련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 임실읍 금성리 소재 임실지하차도에서 교통통제 및 차량 우회조치 등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올 여름 국지적·집중적인 비가 예상된다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도로침수 등 긴급한 상황 발생을 대비한 것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도로 차단 및 지체 통보를 통한 차단기 작동, 임실치즈테마파크 방향 차량 우회 조치 등 다각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최규은 경찰서장은 집중호우 시 순간적으로 물이 차올라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비가 예보될 경우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물이 고여있는 도로는 반드시 확인 후 통과하는 등 안전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